

지역 매아리

정읍장학속, 내년 신규입학생 모집

정읍장학속이 2018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재입학생을 포함해 98명이다.

장학속은 내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 등을 종합 심사한 후 내년 2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읍 관내 학교 졸업자이며, 모집 공고일 현재 부모나 학생 중 1인 이상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사 기간은 1년으로 다음해 2월 중순까지 생활할 수 있다.

입사 등록 시에 입사비 7만원과 1일 3식이 포함된 월 사용료 15만원만 내면 된다.

정읍장학속은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기숙사(2인실 20실, 4인실 14실, 장애인실 2실)와 직영 식당 복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정읍시민강화재단 홈페이지 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고, 정읍장학속(☎031.472-2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내장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4·5·6호점 현판식

내장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해당 업소에서 '착한가게' 4호와 5호, 6호점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 업소는 진현광고(대표 오명규)와 민속기대(대표 송은정), 토종가든(대표 이인석)이다.

관련해 내장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후원(현금·현물)을 모금하고 있다.

특히 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업소를 '착한가게'로 선정, 현판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업소 대표들은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에 동참했다"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모두가 행복할 내장상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상수 공동위원장은 "매월 정기적 후원에 참여해준 업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 기부금은 내장상동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 육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라남·북도 교통요지로

고창군~부안군간 국도23호선 건설 사업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군~부안군간 국도23호선 건설사업'이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확정되며 모든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민선 6기 도로분야 핵심사업인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8년에도 고창군 흥덕면~부안군 행안면까지 국도23호선 59억 원(총 1,497억원, 25.5km), 심원면 궁산리~이산면 삼인리까지 국도22호선 74억원(총 489억원, 13.45km), 고창군 고창읍에서 장성군 백양사IC 구간 국도15호선 50억원(총 490억원, 5.97km)과 장성군 북일면 구간 국도49호선 70억원(총 298억원, 2.65km), 고창~내장IC간 지방도708호선 40억원(총 1,039억원, 13.1km) 등 2018년 국·도비 239억원을 투자해 확포장 및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과 SOC사업을 역제 한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흥덕면~부안군 행안면까지 국도23호선에 대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59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단계부터 부처예산편성과 국회심의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세종시와 국회를 상대로 동분서주해 온 박우정 고창군수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인접 지자체간 연결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군비 12억원을 투자해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고수면 봉산마을 진입로 등 농어촌도로 8개소에 대해서도 군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울러 고창군의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합된 중장기 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1

년간 군비 1억원을 투자해 '고창군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역 내 도로 여건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한빛원전 비상 대피를 위한 무장교차로~상하교차로 국지도 15호선(6.4km) 도로망구축' 등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신규 노선 발굴과 국가계획 반영, 도로망 확충·건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 사업들을 통해 고창군은 정읍시, 부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 등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정비로 명실상부한 전라남·북도를 잇는 교통 요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교통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인접 시·군과 활발한 교류 및 상생발전 강구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친환경 최고의 생태관광명소 만든다

고창군, 지속가능한 생물권보전사업 총력

고창군이 지난 2013년 5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환경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생물권보전지역 5대 핵심지역 중 하나인 동림리수지에서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시작으로 유류지 나무사제사업, 벗짚준치 사업 등 생물 다양성 증진과 복원사업에 힘썼으며, 친환경적인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

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 9월에는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병마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슴리 및 구시포 등 6개소가 국내 최초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써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전했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난 27일 전북도청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울러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더욱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은 동림리수지, 운곡습지와 더불어 5대 핵심지역 중 하나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tv, 안내음향설치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인돌유적 인접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생물권보전사업소 관계자는 "고창군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인 만큼 이를 잘 보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대한방과후협회 전북지부 '전통놀이의 재발견' 책자 발간

대한방과후협회 전북지부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전통놀이와 관련 담사를 통해 지역적인 특징을 찾아 기록하면서 고창의 전통놀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책자 '전통놀이의 재발견'을 발간했다.

대한방과후협회 전북지부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올

6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했다.

'전통놀이의 재발견' 책자에는 공기놀이와 엮기, 구슬치기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부터 율령이삼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에 대한 설명과 놀이방법,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다.

대한방과후협회 전북지부 김부선 대 표는 "우리 전통놀이는 간단하면서도

지역적인 독특함이 잘 담겨 있어 이를 잘 정리하고 전승한다면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전통놀이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의 특징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여중 자율동아리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안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연합회 '꽃피어 이쁜것들'은 28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연합회시 이웃돕기 성금 280여만원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부안여중 자율동아리연합회 '꽃피어 이쁜것들'은 다양한 동아리 연합체로 동아리 활동의 계획·추진에 있어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소질과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학생 중심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조직·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 기탁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학교의 전폭적 지지로 동아리 운영금 감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기에 자신들의 1년간의 프로젝트 결과물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부안여중 자율동아리연합회 한 학생은 "작은 손길에 불과하지만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통해 차가운 겨울이 조금은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상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여중 자율동아리연합회의 이웃사랑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동철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내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신규·핵심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 점검·추진방향 모색

정읍시는 지난 27일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각 소관 국·단·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추진할 내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등 306개 사업에 대한 개괄보고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역발전 추진방향을 모색했다.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이 알찬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행복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김 시장 권한대행은 국·단·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 업무를 언급하며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복체감형 복지실현,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활성화, 시민민족 민원행정 철저, 경로당 그룹홈 운영 활성화, 서남권 추모공원 규모 확장 장기계획 수립, 전국체전 대비 체육 시설물 주변 도로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추진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망 확충 등이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또 악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악취 근절, 상시 방역체계 구축, 첨단농생명 인프라 확충을 비롯, 구절초미공원의 시계절 토탈관광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주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2018년은 시정의 모든 중심을 시민의 행복가치에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시정의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하게 배제하고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확대 선진행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Champong.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